

換率과 油價連動制

달러換率이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의 원貨값이 그 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美貨 1 달러당 現札매도율은 지난 8월 하순에 8백 원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당초 올해 對美달러換率의 상승율을 3% 이내에서 억제시키려 했으나 이로써 換率은 이미 5.3%가 올랐다.

이같은 對美換率의 상승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貨의 강세에 연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美國의 재정적자축소를 위한 高金利체계가 그대로 지속될 전망이고 보면, 우리의 對美換率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換率상승은 수출증대및 수입억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대신 물가와 우리의 對外債務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 주는 兩面性을 갖고 있다.

최근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換率의 상승과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중 7% 증가에 그쳤던 수출은 7월 들어 무려 前年同期對比 15.4%로 倍增했다. 수출증가가 국내경제의 活性化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換率상승이 지니는 否定的인 측면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선 換率이 오르면 物價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게 된다. 換率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은 환율상승폭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換率이 10% 오르면, 輸入原資材의 부담증가로 국내도매물가는 약 5%가 오르는 것이다.

둘째로, 精油産業의 측면에서 볼 때, 換率상승은 否定的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換率상승은 국내油價引上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지난 80년부터 환율상승은 국내油價상승의 主要因으로 등장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을 겪으면서도 國內精油産業은 원활한 油類공급을 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경제발전의 原動力인 基礎에너지의 안정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精油社들은 지속적인 換率상승에 따른 原價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國內 精油5社의 경영성과는 정유사업 부문에서 80년에 5백86억원, 81년에 2백46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며, 82년의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5백29억원의 흑자를 상쇄하더라도 지난 3년간 총 3백3억원의 累積缺損으로 연평균 1백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國內換率은 지난 8월 13일 현재 5.2%의 상승을 나타냄으로써 國內精油社는 이미 올해에만도 약 7백62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으며, 오는 年末까지 7%의 환율상승이 시현되는 경우, 精油5社의 추가부담액은 총 1천1백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精油 5 社의 損益現況

(單位: 억원)

	精油部門	其他部門	計
1980	▲586	101	▲485
1981	▲246	71	▲175
1982	529	28	557
年平均	▲101	67	▲34

지난 8월 13일에 실시된 나프타價格의 조정은 약 0.4%의 換率상승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換率상승에 따라 精油社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國內 石油製品價格의 95% 정

도를 차지하고 있는 原油代를 전액 外貨로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原油導入에 따른 유전스 사용으로 막대한 換差損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換率在 연간 1% 오르는 경우, 国内 精油社의 原油導入費는 2백42억원이 증가하는 외에 유전스 및 차관등 外貨負債에 대한 이자와 換差損이 2백6억원이 발생하여 연간 총 4백48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換率 1% 上昇에 따른 追加費用內訳

I. 原油費	年242억원
(原油價格+運賃/基金/関稅等) × 換率상승폭 × 年間原油導入量 = (27.60달러+8.25달러) × 7.5원 × 1/2 × 180백만배럴 = 242억원	
II. 換差損	年195억원
유전스 및 차관잔액 × 換率상승폭 = 26억달러 × 7.5원 = 195억원	
III. 유전스 支給利子	年11억원
26억달러 × 10.7% × 7.5원 × 1/2 = 11억원	
合 計	年448억원

精油産業은 装置産業으로서 해마다 상당액의 재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경영수지의 악화는 재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석유류의 안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라 低硫黃石油類의 공급을 확대하고, 석유류 수요구조의 輕質化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公害防止시설의 확충과 重質油分解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러한 시설투자는 현재와 같은 경영수지하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精油産業은 국민경제의 基礎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公益性과 사회공헌성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생존조건인 채산성이 무시될 경우, 精油産業의 존립기반은 약화될 것이며, 또 이에 따라 파생되는 국민경제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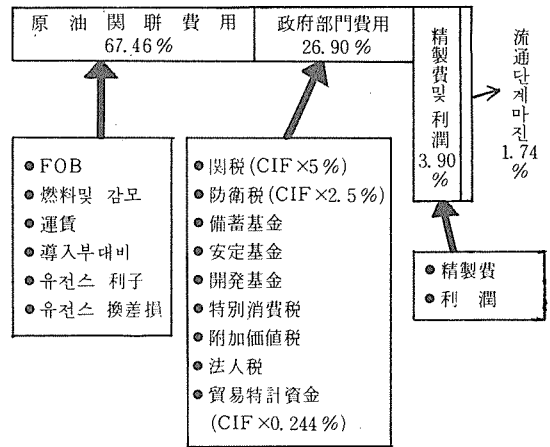
換率상승에 따른 精油産業의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실적인 換率움직임을 반영한 油價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경제 여건상 油價조정이 어렵다면 그동안 발생된 原油費증가 및 유전스·外貨차입금 환차손등의 추가부담을 関稅 및 基金 등 정부부담비용의 축소조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国内 石油製品 原價構成 (消費者價格기준)



현재 배럴당 1달러씩 부과하고 있는 備蓄基金은 국제원유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징수율의 일부를 유보하여 原油導入에 부과되는 과중한 政府部門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석유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아울러 精油業界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原油関稅의 부과 및 基金징수율을 상향조정 한 취지가 石油製品價格 인하요인의 일부를 국가경제발전기반에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油價引上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関稅率/基金징수율의 조정으로 原價上昇分을 흡수함으로써 석유제품가격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었음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油價自律化 추진의 준비단계로서 油價·換率連動制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變動換率制下에서 안정적인 油價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油價억제정책보다는 오히려 赤字누적에 따른 인상요인의 가중을 방지할 수 있는 換率連動制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乾洽·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